

뉴욕에서 살던 내가 이곳 조지아에 와서 제일 먼저 익숙해져야 했던 일은 운전과 교통체증으로 나의 하루에 꽤 긴 시간을 도로에서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뉴욕 도시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지내왔던 나는 버스와 지하철에서 과제 예습 복습을 하거나 책을 읽기도 했고 부족한 잠을 채우기도 했었다. 지금 나는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조지아 귀넷이라는 좋은 동네에 정착하며 살고 있지만, 집에서 애틀랜타 다운타운까지 운전을 해서 출퇴근하며 교통 체증에 시달리는 것이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귀넷 카운티는 메트로 애틀랜타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곳의 한인들의 경제 활동이 조지아의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를 하고 있으며 이런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경제 번영으로 귀넷 카운티는 조지아의 랜드마크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귀넷은 아직 다른 선진 도시들 (뉴욕, 뉴저지, 시애틀 등등)과 비교한다면 도시 발전이 더딘데 그 이유에는 대중교통 혁신과 확장이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해본다.

귀넷 카운티 주민들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귀넷 카운티 대중교통 확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민투표에 회부된 안건은 버스, 고속철도, 버스 노선 확장, 대형 철도 등 교통 접근성 및 인프라 확장을 위해 귀넷 카운티의 판매세(Sales Tax)를 향후 30년간 1% 인상한다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투표가 통과될 경우 귀넷 카운티의 판매세는 현행 6%에서 7%로 인상된다. 귀넷 카운티 교통국의 새로운 계획에는 버스 고속 환승 (BRT), 지역 버스 및 급행 통근 버스 서비스, 주문형 소액 환승 및 보조 대중교통 확장에 대한 서비스, MARTA 도라빌 역에서 애틀랜타 한인회관 근처에 있는 지미 카터 블러바드까지의 노선이 연장되며, 편의 시설을 갖춘 개선된 대중교통 센터, 유연한 일정, 단축된 대기 시간 및 안전한 보행자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귀넷 카운티의 대중교통 확장이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주는 여러 이점들이 있다. 첫 번째로는, 귀넷 카운티의 도시들이 메트로 애틀랜타의 다른 도시들과 원활하게 연결된다는 점이다. 귀넷 카운티는 많은 한인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대중교통 확장으로 인해 지역의 유동인구가 늘게 되면 한인 비즈니스들이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 대중교통 개편안에 포함된 급행 통근 버스는 애틀랜타 도심 출·퇴근자 뿐만 아니라 도심의 주요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서비스도 제공된다. 두 번째로는,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인해 기업들이 귀넷 카운티에 투자하고 이전해 올 수 있다는 점이다. 귀넷 카운티에 기업 환경과 자원을 갖추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올 기회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발전되는 지역의 여러 복지, 문화 자본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의 변화와 주택 가치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며 대중교통 확장으로 인한 85번 고속도로와 지미 카터 블러바드 인근 교통 체증도 해소될 것이다.

이번 귀넷 카운티 대중교통 확장 플랜이 투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커뮤니티의 미래이다. 이번 11월 총선거 귀넷 카운티 대중교통 확장 주민 투표 (Gwinnett Transit Referendum)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우리 커뮤니티의 미래와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한 투자이며 또 100만 인구 시대를 앞둔 귀넷 카운티가 미국의 대표적인 선진 지역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